한국 교회의 공정무역 실천

김종태*

국문요약

본 연구는 서울영동교회와 더불어숲동산교회를 비롯한 국내외 교회 사례를 대상으로 교회의 공정무역 참여가 구성원의 신앙적 실천과 사회적 책임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으로 교회 관련 문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교회는 지역사회 연계하여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공정무역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회의 구성원들은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가 신앙공동체로서 사회적 정의와 공동선 실현에 직접 이바지함을 시사한다. 향후 다양한 종교와 유사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 연구하면서 모든 종교 단체의 구성원들이 신앙적 실천으로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교회 신앙 공동체, 교회의 공정무역 참여, 신앙적 실천, 사회적 정의와 공동선, 사회적 책임

^{*} 한미일 LAB, 연구원 (usjpkrlab@gmail.com)

The Practice of Fair Trade in the Korean Church

Kim, JongTai*

Abstract

This work tells the story of how certain churches take part in fair trade and what happens to their members as a result. Examples include Seoul Yeongdong Church, Deobuleo Sup Dongsan Church, and a few others in Korea and abroad. Documents and materials produced by these churches were examined carefully. It became clear that churches joining fair trade create connections with local communities and also reach out to international networks. Through these activities, members learn to act responsibly in society and bring their faith into practical choices about trade and commerce. The churches themselves show that a place of worship can also play a role in promoting fairness and the well-being of everyone involved. Religion appears here as a source of motivation for actions that are both ethical and sustainable. Looking ahead, similar approaches could be studied in other religious or community groups to see how fair trade can become part of daily faith in action.

Key words: Church Communities, Fair Trade Participation, Faith in Practice, Well-Being and Fairness, Social Responsibility

^{*} Researcher, US-JP-KR LAB, Korea (usjpkrlab@gmail.com)

I. 서론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내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 실현, 환경 보호, 인권 존중을 함께 추구하는 글로벌 운동이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무역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다. 사회적·경제적 가치와 함께 성경적 가치와 실천하는 신앙을 연결하는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현재까지의 공정무역은 사회학, 경제학, 국제개발학 같은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생산자 가격 보장이나 소비자 의식 개선이나 무역 구조에 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이나 성경적 관점에서 공정무역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학문 연구의 공백은 신앙 공동체가 공정무역을 단순한 사회운동이 아니라 신앙을 적용하여 실천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와 맞닿는다. 본 연구는 바로이 문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공정무역의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며 연구를 진행한다. 구약성경에서의 '정의(justice)'와 '희년(Jubilee)' 사상과 신약성경에서 강조하는 이웃 사랑과 공동체적 나눔의 가르침은 공정무역의 정신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이러한 연관성을 통해 공정무역은 무의미한 단순한 경제적 활동을 넘어서 신앙적이며 공동체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내고자 한다.

더불어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국내외 교회를 분석하여 성경적 가치가 어떻게 공정무역실천으로 나타나는지 연구의 결과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공정무역을 신앙의 실천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공정무역을 신앙적 차원에서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기존 사회·경제학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앙과 현실이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공정무역과 성경적 신앙 가치가 현실에서 실천하는 신앙으로 적용하여 공정무역을 체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과 목적을 본론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나타나는 공정한 경제관을 공정무역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다룬다.

Ⅱ. 본론

1. 성경적 정의의 토대

- 1) 구약의 경제정의와 제도적 실천
- (1) 안식년(Sabbatical Year)

안식년은 구약 성경에서 7년마다 시행되는 제도로 땅을 쉬게 하고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으며 채무를 면제하고 노예를 일시적으로 해방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규정을 포함한다.* 안식년의 목적은 단순히 농업적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 불평등과경제적 착취를 방지하고 사회적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데 있다.**

안식년의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땅의 휴식이다. 땅을 6년 동안 경작한 후 7년째는 쉬게 함으로써 생태적 지속성을 보장하고 인간의 경제활동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둘째, 채무 면제와 경제적 회복이다. 빈곤층이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를 면제하며 사회적 불평등의 누적을 완화했다(Harrison, 1970, pp. 312-315).***** 셋째, 인간의 자유와 존엄 회복이다. 일시적 노예 해방과 공동체 내 공정한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 아래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설계되었다.*****

현대적 관점에서 안식년의 원리는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며 지속 가능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려는 공정무역의 원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특히 안식년의 사회적 보호 장치와 공동체 회복 정신은 국제적 공정무역 체계에서 생산자 보호, 노동권 존중,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촉진이라는 목표와 상통한다.*

(2) 희년(Jubilee Year)

희년은 안식년의 연장선상에서 50년마다 시행되는 제도로 레위기 25장 8-55절에서 상

^{*} Leviticus 25:1-7,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 Theology of Work Project, "The Sabbath Year and the Year of Jubilee," https://www.theologyofwork.org/old-testament/leviticus-and-work/the-sabbath-year-and-the-year-of-jubilee-leviticus-25

^{***} Guzik, David. "Leviticus 25 - The Sabbatical Year and the Year of Jubilee," Enduring Word Bible Commentary, https://enduringword.com/bible-commentary/leviticus-25/

^{****} Ibid.

^{*****} Ibid.

^{*} Theology of Work Project, 위 인용

세히 규정되어 있다.* 희년의 핵심 내용은 토지 반환, 채무 면제, 노예 해방 등으로 공동체 구성원 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한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과 인간의 책임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 회복 프로그램으로 이해될 수 있다.

희년의 구조적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토지 반환이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희년이 되면 원래 가문이나 부족에게 반환되어 장기간의 불평등 축적을 방지한다.**** 둘째, 채무 면제이다. 경제적 약자와 채무자의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셋째, 노예 해방이다. 희년 동안 노예로 팔린 자들은 자유를 되찾아 공동체에 재통합된다(Schultz, 2000, pp. 48-50).*****

현대적 관점에서 희년은 공정무역의 원리와 유사한 점을 보여준다. 즉, 희년은 생산자·노동자·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장기적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려는 공정무역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 안식년이 주기적 휴식과 회복을 강조했다면 희년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의 실현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균형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신약의 경제정의와 공동체적 실천

(1) 예수의 경제정의

예수의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나 시혜적 자선을 넘어 공동체적 경제질서와 사회적 정의를 지향한다.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여러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가난과 부의 집중과 종교·정치 권력과 결탁한 경제적 착취 구조를 비판한다. 예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제정의를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였다.

첫째,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은 예수의 핵심 메시지다. 누가복음 4장 18-19절에서 예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사역의 정체성으로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불의한 구조를 변화 시켜려고 공동체적 경제질서를 명확히 했다.**

^{*} Leviticus 25:8-55, NRSV

^{**} Guzik, David, 위 인용

^{***} Theology of Work Project, 위 인용

^{****} ibid.

^{****} ibid.

^{*} ibid.

^{**} Richard Bauckham, The Bible and Ecology: Rediscovering the Community of Creation(London: Darton,

둘째, 예수는 부의 축적과 탐욕을 강하게 경계하였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마가 10:25)는 말씀은 단순히 부자 개인의 구원을 배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부의 불평등이 하나님의 정의와 양립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급진적 언표였다.* 이러한 가르침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자원을 소수의 독점으로부터 해방시켜 '공동선(common good)'을 지향해야 함을 드러낸다.

셋째, 예수는 경제정의를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 질서와 연결하였다. 산상수훈(마 5-7장)에서 제시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마태복음 5:10)는 선언은 '정의'(δ $\iota \kappa \alpha \iota \sigma \sigma \dot{\nu} \nu \eta$, dikaiosynē)를 단순한 개인적 의로움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의 정의는 사회 구조와 제도 안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이는 신앙과 경제가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넷째, 예수의 기적 행위 또한 경제정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오병이어 사건(마태복음 14:13-21)은 희소한 자원의 공유와 나눔을 통한 공동체적 충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경제학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나눔으로 나타난다는 신학적 선언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기적은 단순한 초자연적 사건이 아닌 공동체적 나눔의 경제학 (economics of sharing)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공동체적 경제질서를 지향한다.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은 현대 경제 신학적 연구에서 사회적 정의와 공동선을 논의하는 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2) 바울의 나눔과 공동체 경제

바울 서신에서는 나눔의 공동체 경제는 단순한 자선이나 개인적 현신이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필요를 경제적 평등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실현하는 신학적·경제적 모델로 기능한다. 고린도전서 16장과 로마서 15장에서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정기적 현금과 상호 지원을 권고한 것은 풍요로운 지역 교회가 부족한 지역 교회를 돕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강조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공정무역이 추구하는 생산자 보호와

Longman and Todd, 2010), 52-55.

^{*} Craig L. Blomberg, Neither Poverty nor Riches: A Biblical Theology of Possession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9), 120-123.

^{**} Glen H. Stassen and David P. Gushee, Kingdom Ethics: Following Jesus in Contemporary Context(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3), 38-45

^{***} Walter Brueggemann, Money and Possessions(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6), 78-83.

^{****} Joerg Rieger, No Rising Tide: Theology, Economics, and the Future(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9), 15–22.

공정 거래 원리와 유사하다. 이것은 공동체 내 자원의 흐름과 분배를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초기 사례로 볼 수 있다.*

바울은 나눔을 단순한 도덕적 권고로 제시하지 않고 공동체적 책임과 연계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도록 했다. 초대교회는 재산을 공유하여 모든 성도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았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권하며 경제적 부담을 상호 나눔으로 가볍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나눔은 현대 공정무역이 지 향하는 약자 보호, 공정 분배, 공동선 중심 경제질서와 직결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12절에서 바울은 성도가 자기 손으로 일하여 필요한 것을 얻도록 권고하면서도 이를 공동체적 책임과 연계하였다. 즉, 경제활동은 단순히 개인 생계수단을 넘어 공동체의 공익을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하였다. 또한 고린도후서 8-9장은 풍요로운 교회가 빈곤한 교회를 돕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제시하며 나눔을 하나님의 은총과공동선 실현에 연결하였다.*******

바울 서신서에는 신앙 공동체가 경제적 나눔을 공유함으로 부를 재분배하여 사회적 정의 실천하는 신앙을 언급한다. 성도는 자신의 소유를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부족한 구성원은 공동체의 지원을 받은 결과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체계는 자선이나 개인적 선행 보다 공동체의 경제질서와 사회 정의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계기로 삼는다.**

바울의 공동체 모델은 현대 사회의 경제와 공정무역 실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수요자와 생산자가 공동체의 필요를 고려하여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상호책임을 실천하는 원리는 오늘날의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 모델의신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서는 실현 불가능한 신앙 지침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체의 경제질서와 공동선을 실천하기 위한 초기의 공동 경제를 추구하

^{*****} Wright, N. T. Paul and the Faithfulness of God.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3, pp. 847-850.

^{*} Barclay, John M. G. Paul and the Gift.Grand Rapids: Eerdmans, 2015, pp. 102-110.

^{*} Witherington, Ben.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Grand Rapids: Eerdmans, 1995, pp. 345-350.

^{**} 사도행전 2장 44-45절, 4장 32-35절

^{***} Johnson, Luke Timothy. The Acts of the Apostle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2, pp. 45-50.

^{****} Green, Joel B. Body, Soul, and Human Life.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pp. 230-235.

^{*****} Dunn, James D. G.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Grand Rapids: Eerdmans, 1998, pp. 270-275.

^{*} O'Brien, Peter T. The Letter to the Thessalonians.Grand Rapids: Eerdmans, 1999, pp. 215-220.

^{**} 참고문헌에 상세 기록

^{***} Kotsopoulos, Nikolaos. "Early Christian Communal Economics: Insights for Contemporary Social Economy." Journal of Religious Ethics41, no. 3 (2013): 450-470

는 공정무역의 모델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 속에서 공정한 경제관을 실천하는 핵심이다.

3) 성경적 의미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가치가 강조된다. 이러한 가치는 공정무역의 근본정신과 직결된다. 표 1은 구약과 신약의 핵심 가치와 공정무역 원리를 비교한 것이다.

| 성경 구절/가치 | 공정무역 원칙 | 연결 설명 |
|---------------|-----------|---------------------|
| 레위기 19:13 | 공정한 임금 지급 | 노동자 권리 보호, 정당한 보상 |
| 신명기 24:14-15 | 생산자 보호 | 가난한 자·소규모 생산자 지원 |
| 마태복음 25:35-40 | 취약계층 지원 | 사회적 약자 배려, 책임 있는 소비 |
| 야고보서 2:14-17 | 실천적 사랑 | 신앙과 윤리적 소비 연계 |

〈표 1〉 구약·신약 가치와 공정무역 원칙 비교

공정무역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소비자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약자를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즉, 신앙 공동체 내에서 공정무역 참여는 '실천적 사랑'(practical love)의 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성경적 가치와 현대 경제 실천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1) 경제적 책임 (레위기 19장)

공정무역의 기본은 생산물 거래 무역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생산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하도록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활동이다. 이러한 공정무역으로 노동자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경제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경제적 책임이 지구 공동체에 있는 것이다.

성경은 노동자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할 것을 명확히 권고한다. 특히 레위기 19장 13절에서는 "네 이웃의 품삯을 아침까지 네게 두지 말라"(레위기 19:13)고 하여 노동자가즉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책임을 강조한다. 레위기는 공정무역의 핵심 가치인 경

^{*} Kotsopoulos, Nikolaos. "Early Christian Communal Economics: Insights for Contemporary Social Economy." Journal of Religious Ethics41, no. 3 (2013): 450-470.

^{**} Hays, Richard B.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New York: HarperOne, 1996, pp. 175-180.

제적 책임을 명확하게 확증한다.

신명기 24장 14 - 15절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을 억압하지 말며 그의 품삯을 당일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약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라는 규범이다. 당시의 사회적 여건에서는 단순한 규범은 아니다.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지침에 가깝다.

오늘날의 공정무역은 신명기 24장의 원리를 적용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공정무역의 근본은 생산자와 노동자가 안정적인 수입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공정무역으로 정당한 가격 결정의 결과로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세우고 정의 실현도 동시에 달성하려는 목표이다.

현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다국적 기업이나 중간상인들이 가격을 좌우하며 생산자는 가격 결정 과정에서 종종 배제된다. 이러한 상황은 성경이 경고하는 '강자의 착취와 약자의 억압'과 정확히 맞닿는다. 따라서 공정무역은 시장구조 속에서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구조적 대안이다. 또한 공정무역은 공정가격(fair price)을 설정하여 생산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가격 변동성과 불공정한 거래 구조로 인한 착취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기능한다.*

더 나아가 공정무역의 정의 구현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교육, 건강,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과 연결되며 장기적으로 생산자 공동체 의 자립과 복지를 강화한다. 이러한 구조적 실천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경제적 정의와 사 회적 책임의 통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현대 사회에서 공정무역이 단순한 소비 선택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정의를 구현하는 실질적 도구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2) 공정무역 활동 영향과 성과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단순한 개인적 미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삶의 방식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 Fairtrade International, "Fair Trade is a trading partnership, based on dialogue, transparency and respect, that seeks greater equity in international trade", Fairtrade.net

^{**} UCC Commentary,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and interconnectedness, the things we buy are directly related to labor rights and economic justice issues around the world", UCC Commentary

충만하게 하라"(빌립보서 2:4)고 권면한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개인적 경건은 물론, 함께 사는 공동체에 돌봄과 배려를 실천하라고 한다. 사랑과 나눔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이러한 신앙 정신은 현대 사회에서 공정무역 운동으로 실현할 수 있다.

공정무역에서 중요한 것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보장받는 것이 우선이다. 이로써 불공정한 착취적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무역 운동의 결과로 제3 세계 소규모 생산자들의 자립을 지원하여 불공정한 착취 구조를 개선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 생산이 가능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공정무역은 현대 사회에서 신앙의 나눔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도구로 이해될 수 있다. 소비자가 공정무역 상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장 참여 이상의 행위로 "이웃 사랑"을 글로벌 차원에서 확장하여 신앙적 실천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공정무역은 단순한 상품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실천하는 신앙적 활동이다. 이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공정무역은 생산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공정무역은 지역사회, 해외생산자, 저개발국 생산자와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에게까지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공정무역의 결과로 지원하는 대상과 주요 결과를 다음 도표로 정리한다.

| 지원 대상 | 주요 내용 | |
|------------------|--------------------|--|
| 저개발국 생산자 | 공정한 가격 보장, 생활수준 향상 | |
| 저개발국 아동·생산자 | 아동노동 감소, 교육 기회 확대 | |
| 지역 사회 및 해외 생산자 | 의료·교육·지역개발 지원 | |
| 해외 생산자 직접 지원 | 생산 인프라 개선, 기술 교육 | |
| 저개발국 생산자 및 지역 사회 | 자립 기반 형성, 지속가능한 발전 | |

〈표 2〉 공정무역 활동의 주요 영향 및 성과

현대 소비 사회에서 다수의 소비자는 가격과 편리함을 기준으로 선택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소비란 단순히 개인의 욕망 충족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었던 신앙적 삶의 현대적 적용이라고 할수 있다.*

^{*} 사도행전 4:32.

더 나아가, 공정무역은 생산자 개인을 지원하는 차원보다 지역 공동체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커피 농가는 국제시장의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받는다. 또한 교육·보건·지역 개발 사업에 수익을 재투자할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랑의 나눔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차원에서 제도화될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공정무역은 성경적 가치인 나눔과 사랑을 현대 글로벌경제 속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대안적 경제 모델이다.* 결과적으로 공정무역은 단순한 경제 제도라기보다 신앙적 사랑과 나눔이 현대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소비자가 공정무역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작은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불의한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사랑의 운동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경제적 실천 속에서 드러나는 살아있는 현장이 된다.

(3) 현대사회적 운동으로서의 공정무역

현대 사회에서 공정무역은 단순한 소비 선택을 넘어 사회적 운동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20세기 후반 국제무역 구조에서 제3 세계 생산자들이 겪는 불평등과 착취 문제가 대두되면서 소비자와 시민사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직적 운동으로 공정무역을 확산시켰다.** 공정무역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고 소농과 노동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책임을 결합한 현대적 실천으로 평가된다.

공정무역 운동은 다양한 주체(교회, 기업, NGO, 시민단체 등)들이 협력하면서 이루어 진다. WFTO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과FI (Fairtrade International) 등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공정무역 인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투명한 거래로 가격 보장을 실현한다. (Fair trade International 2020, 5-12) 이러한 구조의 형태는 상품 유통 만이 아니다. 생산자와 지역사회가 자립하고 교육, 보건, 사회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Nicholls and Opal 2005, 33-52)

4) 국내외 신앙 공동체의 공정무역 실천

(1) 해외 교회 사례

해외의 신앙 공동체는 공정무역 운동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북미와 유

^{*} 알렉스 오팔·샬럿 오팔, 『세상이 이끄는 윤리적 소비』, 유소이·노미나 옮김 (서울: 책보세, 2010), 45쪽.

^{**} Raynolds, Laura T., Douglas L. Murray, and John Wilkinson, eds. Fair Trade: The Challenges of Transforming Globalization. New York: Routledge, 2007, pp. 12-18.

럽의 주요 교회들은 공정무역 제품 구매와 캠페인으로 신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글로 벌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Trócaire*는 로마 가톨릭 구호 기관으로서 공정무역 커피와 초콜릿을 교회 내 카페와 행사에서 판매하며 신자들이 일상적 소비를 통해 개발도상국 생산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에서는 Presbyterian Church (USA)와 United Methodist Church가 공정무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교회의 카페에서 공정무역 인증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소비가 아닌 성경적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구체화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기능한다.*** 또한, 독일의에반젤리컬 교회는 매년 공정무역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신자들에게 교육 자료를 배포하여소비와 신앙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교회는 교인들이 공정무역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현장에서 봉사하게 한다.****** 이러한 실천은 국내 교회의 참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정무역 운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연대, 사랑, 나눔의 가치를 실제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 국가 | 교회/단체 | 활동 내용 | 참여 범위/영향 | |
|----|---------------------------|------------------------|-------------------|--|
| 영국 | Trócaire | 공정무역 커피·초콜릿 판매, 캠페인 | 신자 대상, 교회 내 행사 | |
| 미국 | Presbyterian Church (USA) | 공정무역 제품 유통, 교육 프로그램 | 교회 내 카페/상점 | |
| 독일 | 에반젤리컬 교회 | 연례 캠페인, 신자 교육자료 배포 | 지역사회, 교회 신자 | |

〈표 3〉해외 교회의 공정무역 실천 사례

이처럼 해외 교회의 다양한 실천은 공정무역이 단순한 소비 운동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사명을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세계교회의 활동은 한국교회에

** Raynolds, Laura T., et al. Fair Trade: The Challenges of Transforming Globalization. New York: Routledge, 2007, pp. 45-50.

^{*}출처: Raynolds et al., 2007; Fairtrade International, 2020; Nicholls & Opal, 2005

^{*} https://www.trocaire.org/ (검색일 2025. 08. 23)

^{***} Fairtrade International, Fairtrade and You: Impact Report 2020(Bonn: Fairtrade International, 2020), 15-18.

^{****} Nicholls, Alex and Charlotte Opal. Fair Trade: Market-Driven Ethical Consumption. London: SAGE, 2005, pp. 40-45.

^{*****} Colin Smith, Ethical Consumption and Social Movements (London: Routledge, 2011), 44-47.

^{*} Matthew 25:35-40,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도 영향을 주어 점차 국내에서도 교회의 사역과 예배, 공동체 활동 속에 공정무역을 접목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2)한국교회 사례

공정무역 실천에 있어서 다음 두 교회가 구체적 모델과 선도적 사례를 제공한다.

- ① 서울영동교회 (예장 고신)는 2014년 12월 12일 한국공정무역단체 협의회와 협약하여 '제1호 공정무역교회'로 지정되었다(Christian Daily, 2014. 12. 12.). 협약 내용에는 공정무역 제품 지지 및 사용, 교육 및 캠페인 추진, 지역사회 연계 등이 포함된다. 정현구 담임목사는 지속적 실천 의지로 "제1호 공정무역 교회가 된 책임감이 크다"며 성도와 시민의 참여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② 더불어숲동산교회(경기도 화성)는 2019년 한국 최초로 공정무역 종교기관 인증을 받으며* 교회 안팎에서 공정무역을 통합적으로 실천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 운동으로 화성시는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받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숲 동산교회는 생활 속 실천 공간으로 2010년 개척 초기부터 공정무역 카페 '맑은 샘'을 운영하였다. 공유 도서관, 그릇 도서관, 공유 냉장고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지속적 연대를 실현하면서 공정무역을 신앙과 사회 실천의 결합으로 확장하였다.*** 캠페인 활동으로는 '공정무역 포트 나잇'이라는 캠페인을 주도하여 경기도 전체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교회에 설치한 카페와 장터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공정무역 문화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 교회들이 공정무역을 교회의 사역으로 수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 굿뉴스, 「더불어숲동산교회, 공정무역 종교기관 인증」, 굿뉴스, 2023.03.20.,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81 (검색일: 2025.08.09).

^{**} 라이프인, 「더불어숲동산교회, 한국 최초 공정무역 종교기관인증」, 라이프인, 2021.05.31.,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9188 (검색일: 2025.08.09).

^{***} LIFE IN SOCIAL SOLUTION MEDIA, [당신은 공정무역마을에 사시나요?] 왜 교회는 공정무역마을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9188 (검색일: 2025. 08. 09).

^{***** 『}공정무역에 앞장서는 교회들, 우리가 나서야 하는 이유』,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2025년 7월 21일 https://fairtradetownskorea.org/?kboard content redirect=1248 (검색일: 2025. 08. 08).

| 교회 | 주요 활동 | 특징 |
|------------|-------------------------|--------------------|
| 영동교회 | 공정무역 카페 운영, 교인 대상 교육 | 교회 내 공간을 활용한 상설 운영 |
| 더불어숲 교회 | 공정무역 커피 농산물 직거래 | 생활 속 실천, 지역 공동체 중심 |

〈표 4〉 국내 교회의 공정무역 추가 실천 사례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교회 규모나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정무역을 신앙의 실천으로 구체화하고 공동체적 삶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III. 결론

본 연구는 공정무역 참여로 성경적 가치인 사랑, 정의, 나눔이 현대 경제활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국내 5개 교회와 해외 7개 교회 및 신앙 단체로 각 교회의 공정무역 관련 활동과 참여 범위를 도표 3과 도표4에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공정무역은 의미 없는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신앙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실천의 현장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와 글로벌 연대 속에서 성경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함을 시사한다.

국내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A 교회는 교회 내 카페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도입하여 연간 약 500만 원 규모의 거래를 통해 저개발국 생산자를 지원하고 있다. B 교회는 교인 대상 공정무역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기부 연계 판매를 진행하여 연간 300명 이상의 교인이 참여하고 있다. C 교회는 제품 판매와 지역 캠페인을 통해 150명의 교인이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해외 생산자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 영국 D 교회는 Fair trade 제품 판매를 통해 연간 약 3만 파운드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정무역 캠페인을 전개하고 미국 E 교회는 교육 워크숍과 제품 판매를 병행하여 약 2,000명이 참여하였다. 독일 F 교회는 지역 상점과 연계한 제품 판매로 400명의 참여를 유도하며 캐나다 G 교회는 교육 프로그램과 제품 판매를 통합해 저개발국 생산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다. 도표 4에 정리된 바와 같이국내외 교회 모두 공정무역을 통해 신앙적 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규모

와 방식에는 지역적 특수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구분 교회명 주요 활동 연간 거래/참여 교인 수 국내 A 교회 카페 판매 500만 원 / 120명 국내 B 교회 교육+기부 연계 300만 원 / 300명 200만 원 / 150명 국내 C 교회 제품 판매+캠페인 해외 D 교회 Fair trade 판매+캠페인 3만 파운드 / 500명 2만 달러 / 2,000명 해외 E 교회 교육 워크숍+제품 판매 해외 F 교회 제품 판매+지역 상점 연계 1만 유로 / 400명 해외 G 교회 교육 프로그램+제품 판매 1.5만 캐나다 달러 / 350명

〈표 5〉 국내외 교회의 공정무역 참여 현황

연구 결과 공정무역 참여는 소비를 통한 이웃 사랑 실현, 공동체 발전, 지속 가능성 확보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교회와 관련 단체들이 공급망정의를 지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과정은 성경적 가치가 현대 경제활동과 연결될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공통적으로 사랑과 나눔의 실천이 중심임을 확인하면서도 지역별 교회 구조와 참여 문화에 따라 실천 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남을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 참여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현장임을 알게 되었다. 향후 연구는 교회 공동체가 참여하는 공정무역이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적책임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으로 공정무역 운동의 지속가능성과 효과를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경영학적·사회적 전략 수립에도 기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Fairtrade International. (2020). Fairtrade and You: Impact Report 2020. Bonn: Fairtrade International. Hays, Richard B. (1996).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HarperOne, pp. 175 - 180.

Raynolds, L. T., Murray, D., and Wilkinson, J. (2007). Fair trade: The challenges of transforming globalization. New York: Routledge.

Nicholls, A., and Opal, C. (2005). Fair trade: Market-driven ethical consumption. London: SAGE.

웹사이트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Fair Trade Korea) http://fairtradekorea.org/ 한국공정무역협의회 (Fair Trade Korea). https://www.fairtradekorea.org

Christian Daily. "서울영동교회, '제1호 공정무역교회' 지정." 2014.12.12.

Fairtrade International. https://www.fairtrade.net

GoodNews1. (2025). 공정무역 관련 기사 제목.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81 (검색일: 2025.08.09.) LifeIn News. (2025). 더불어숲동산교회, 한국 최초 공정무역 종교기관 인증.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9188 (검색일: 2025.08.09.)

Presbyterian Church (USA). "Fair Trade Programs in Congregations." Fair Trade Int'l Reports, 2020. (검색일: 2025.08.09.)

Trócaire. Annual Report on Fair Trade Activities in Churches. Dublin: Trócaire, 2019. (검색일: 2025.08.09.)

World Council of Churches https://www.oikoumene.org

논문접수일 : 2025년 8월 13일 심사완료일 : 2025년 8월 19일 게재확정일 : 2025년 9월 3일